

• 동아리톡톡 •

색을 보며 마음 나누다

나를 알면 타인도 이해하는 행복의 지름길



사하구 평생학습관에는 색채에서 나타난 숨겨진 사람의 마음을 보면서 대화를 나누는 사색심 상담 동아리가 있다. '사색심'은 사하구 색채심리의 줄인 말이다. 동아리의 인연은 지난해 7월에 개강한 색채심리 상담사 3급 과정에서 시작되었다. 주 2회 3시간씩 수강하여 9월에 자격증을 취득한 수강생들은 동아리 설립과 함께 바로 2급도 수강하여 자격증을 취득하였다. 그러나 여기서 만족 하지 않고 평생학습관 맞은편 새동아직업전문학교에서 회원들이 매주 만나서 공부를 계속

하였다. 이 사실을 알게 된 강사 박정희 씨는 열심히 하는 수강생의 태도에 반해 1급 자격증 수강을 권유하였고 '사색심'은 사하구 평생학습관 동아리 최초로 1급 자격증에 도전 중이다. 이론 수업은 마쳤는데, 현재는 코로나 바이러스 19로 인해 임상실습 수업은 중단된 상태다. 색채심리는 그림과 색깔로 지난간 기억을 회상하거나 내면의 무의식을 나타내면 상담을 한다. 이 과정을 통해 과거의 자신과 화해하고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며 타인의 삶도 이해하는 마음을 갖게 되어 행복한 삶을 살

아가게 된다. 사하색채심리 상담사 동아리 회원 19명은 매일 1~2회 모여서 좀 더 나은 실력을 쌓기 위해 계속 공부를 하면서 봉사활동 계획도 세우고 있다. 활동 대상은 유치원생부터 치매 어르신까지 다양하다. 이들은 지난해 11월에는 다대포에서 열린 평생학습 성과공유회에 참가, 어린이와 청소년이 함께 하는 가족 상담을 하여 인기를 모으기도 했다. 그 외에도 부산역 광장, 괴정 지하철역, 주간보호센터에서 활동을 했다. 어르신에게 크레파스로 도화지에 그림을 그리게 하고 색칠을 하게 했을 때, 무엇을 그려야 할지 모르겠다고 한다. 그러면 제목을 정해서 그릴 수 있도록 유도하면 심리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마음이 색채를 통해 나타난다. 상담사들은 그들과 생활 속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면서 대화를 나누게 되는데 '내 마음을 우째 이리도 잘 아노. 여기서 했는 말은 비밀이 지켜지겠제' 라고 말 할 때는 꼭 지키겠노라고 말씀 드리고 마음속으

김필범 평생학습 구민기자 shjpbun@naver.com

모래톱행복마을 평생학습빌리지에 선정

전통 체험, 토요 창의학교, 숲활동 주민강사 양성과정 개최

모래톱행복마을이 2020년 평생학습 빌리지 지원사업에 선정되었다. 평생학습빌리지 지원 사업은 사하구 도시재생과의 '행복마을만들기 사업'으로 구축된 마을을 대상으로 주민 수요와 지역 특성을 반영한 특성화 프로그램이다. 사하구는 2015년부터 평생학습빌리지 지원 사업에 선정되어 행복마을의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지원을 하고 있다. 모래톱행복마을은 평생학습빌리지 지원 사업으로 전통 체험학교, 토요 창의학교, 숲속학교 강사 양성과정을 진행할 예정이다. '신도불이 전통 체험학교'에서는 안전한 먹거리에 대한 관심과 웰빙 흐름에 따라 발효음식 만들기를 한다. 초등학생과 중학생 대상으로 5월에서 12월까지 평일 오전에 총 15회 운영된다. 초등학생 자녀가 있는 가족 대상 프로그램인 '신나는 모래톱 토요 창의학교'는 토요일 오전에 개설된다. 5월에서 12월까지 12회 진행된다. 가족이 다 같이 체험할 수 있도록 쿠키, 숲 공예품, 에코백, 꽃 소품 만들기를 한다.

아이들을 마을에서 함께 키울 수 있도록 기획한 이 강좌들은 학교 밖의 마을 체험활동에 대한 관심과 수요를 충족시켜 줄 수 있을 것이다. 모래톱행복마을 행복센터 주위는 동매산 등산로 입구라서 가족 단위 등산객이 많다. 따라서 숲, 생태환경을 이용한 프로그램이 용이하다. 주민 누구나 수강할 수 있는 프로그램인 '동매산 숲속학교 강사양성 과정'은 총 12회 진행된다. 5월에서 7월까지 평일 오후에 열리며 이 과정을 이수한 수강생은 숲활동 주민강사로 활동할 수 있다. 마을 공동체에 관심 있는 사하구 주민이라면 올해 평생학습빌리지 지원 사업에 선정된 모래톱행복마을행복센터를 많이 활용하자. 마을주민이 같이 배우고 소통해서 행복한 마을 만들기에 동참하면 좋을 듯하다. 문의: 신평2동행정복지센터 220-5242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프로그램 일정이 변경될 수 있음)

고명옥 평생학습 구민기자 arm5013s@naver.com

휴관 중에도 책 빌릴 수 있어요

작은도서관 15곳, 비대면 도서대출 한시운영

도서대출 신청 [홈페이지]	도서수령 [도서관 현관 입구]	준비물
09 : 00 ~ 24 : 00	오전 10:00 ~ 12:00 오후 14:00 ~ 16:00	책이음 회원증



코로나19로 인해 도서관 휴관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사하구 작은도서관은 도서관 이용자의 불편을 덜기 위하여 '비대면 도서 대출 서비스'를 한시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비대면 도서 대출 서비스는 부산광역시 공공도서관 통합도서관을 대상으로 휴관기간 동안 이루어진다. 운영 장소는 시설점검 중인 무지개작은도서관을 제외한 회화나무작은도서관 등 15곳이다. 사하구청 홈페이지를 통해 도서수령을 원하는 작은도서관에서 비대면 도서 대출을 신청할 수 있다. 1인 5권을 2주간 대출할 수 있으며, 당일 오후 3시까지 신청하면 다음날 도서관 현관 입구에서 수령하는 방법이다. 도서 수령은 오전 10~12시, 오후 2~4시 두 차례 가능하다. 신청할 때 도서명, 신청자 이름, 휴대폰 번호, 대출자 이름 등을 정확히 기재해야 한다. 도서반납은 도서관 반납함을 이용하거나 다시 개관이 될 때 할 수 있다. 비대면 도서 대출로 독서가들의 욕구를 조금이라도 해결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문의: 사하구 평생교육과 220-4834 사하구 홈페이지 www.saha.go.kr

최진 평생학습 구민기자 jini3259@hanmail.net

사하배움마당 VOL.24



발행 : 부산광역시 사하구 주소 : 부산광역시 사하구 낙동대로398번길 12(당리동) 전화 : 220-4801-6 팩스 : 220-4809 발행일 : 2020. 04. 20.

넓고 쾌적, 카페 온 것 같아요

사하구 평생학습관 · 신평동 꿈꾸는작은도서관 탐방



작은도서관 전경



어린이 자료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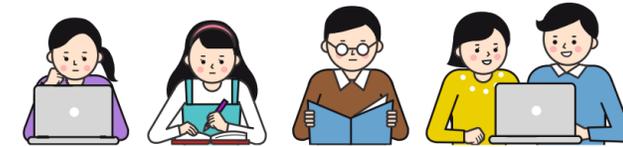
평생학습관 강의실

사하구 평생학습관과 신평동 꿈꾸는 작은도서관이 사하구 제2청사 5층으로 이전하여 새로운 보금자리를 마련했다. 이전에 애로사항 중 하나였던 주차 문제는 지상과 지하에 주차장이 생겨 이용자의 편의가 좋아졌다. 사하구 평생학습관은 강의실이 4개로 늘어나고 각 공간도 넓어져 50명 정도의 인원이 들어갈 만하다. 협소한 강의실로 인해 수강 인원의 제약이 많았던 아쉬움이 개선되어, 더욱 다양한 프로그램에 많은 구민들이 참여할 수 있게 되었다. 무광화이트 스크린보드나 전자교탁 등 새로운 설비도 잘 갖추어진 점이 눈에 띄었다. 훌륭한 인프라를 갖춘 사하구 평생학습관을 중심으로 사하구 구민들의 평생학습 참여와

역량 강화, 재능기부 활동 등이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신평동 꿈꾸는작은도서관은 산뜻하게 변신했다. 신간코너는 부드러운 카페 분위기가 났다. 일반자료 열람실에는 개인용 독서등이 설치되어 있었고, 유아실과 어린이자료실이 따로 생겼다. 신평동 꿈꾸는작은도서관은 코로나로 인해 현재 도서관을 개방하지 못하고 있지만, 4월 1일부터 인터넷 신청으로 비대면 대출을 할 수 있다. 문의 : 사하구 평생학습관 220-4117 신평동 꿈꾸는작은도서관 220-5258

김미영 평생학습 구민기자 ivy1201@hanmail.net

언제나 누구나 들을 수 있는 온라인 평생학습 강좌



사하구는 코로나19의 전염 확산 방지를 위해 사회적 거리 두기 일환으로 오프라인 강좌를 전면 중단하였다. 이럴 때 대처할 수 있는 대안이 온라인 강좌일 것이다. 장소나 시간의 제약을 받지 않고 들을 수 있는 온라인 강좌에 대해 알아본다. 사하구는 주민들의 직업능력 향상과 평생학습 활성화를 위해 ㈜트리스와 한국지식교육협회와 협약하여 주민들에게 국가자격증과정과 다양한 민간자격증과정, 그리고 인문학·교양강좌를 온라인으로 수강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다. 국가자격증 과정으로는 사회복지사 2급과 보육교사 2급이 있으며 사하구민은 수강료 70%가 지원된다. 47개 민간자격증과정과 58개 교양강좌는 전체 과정이 무료로 제공되고 있다. 외국어강좌를 비롯하여 심리상담사, 병원코디네이터, 방과후지도사, 모래놀이상담사, 문학심리상담사, 동화구연지도사, 미술심리상담지도사, 아동요리지도사, 아동폭력예방상담사, 인성지도사, 이미지메이킹, 스피치지도사, 손유희지도사, 클레이아트지도사 등 다양한 강좌가 있다. 이중에 관심을 가져볼만한 강좌가 있다. 병원코디네이터는 병원의 관리개선을 담당하고 접수와 예약관리, 병원마케팅, 직원교육의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고, 방과후학교지도사는 학교가 끝난 아동을 부모에게 인계하기 전까지 안전하게 보호함과 동시에 계획된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제2의 학습 교사의 역할을 한다. 또 문학심리상담사는 심리적, 정서적, 사회적 장애를 겪는 사람들에게 문학 활동을 통해 정서적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상담사로 양성하는 과정이다.

이밖에도 클레이아트지도사는 손 감각을 길러주는 교육으로 공예재료인 점토 다루는 법을 효과적으로 지도하는 전문적 교육이고, 이미지메이킹은 개인의 이미지 경쟁력을 강화하여 컨설턴트로서의 전문성을 갖추도록 돕는 새로운 지도자 양성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또 지역주민들의 학력 보안을 위하여 부산MBC(iMBC캠퍼스)와 협약을 체결, '초·중·고 검정고시'와 학위취득을 할 수 있는 '독학취위제'를 운영하고 있다. 검정고시와 독학취위제는 사하구구민이면 일반인은 50%, 취약계층은 전액 무료로 지원되고 있다. 독학취위제는 고등학교 졸업자로 정규 대학에서 학위를 취득할 기회를 놓친 사람들이 대학에 출석하지 않고 4단계의 시험에 통과하면 교육부장관 명의의 학사학위를 취득할 수 있는 과정이다. 모든 강좌는 언제든지 수강신청하면 들을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사하구 평생학습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 기회에 온라인 강좌를 듣는 것도 코로나19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한 방법일 것이다. 문의 : 사하구 평생교육과 220-4805 사하구 평생학습관 홈페이지 www.saha.go.kr/edu

천종숙 평생학습 구민기자 tagora0308@hanmail.net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평생학습프로그램 잠정중단안내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평생학습관 등 시설물을 폐쇄하고 프로그램 운영을 중단합니다.

평생학습관, 동네방네학습관, 행복학습센터, 사하이카데미, 사하자연학교, 배달강좌 등 사하구 평생학습관 홈페이지 www.saha.go.kr/edu

향후 진행사항은 평생학습관 홈페이지 및 SNS를 통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문의: 평생교육과 220-4801-6, 평생학습관 220-4117-8

행복한 학습공간
동네방네학습관

동네방네학습관 이용하기

이용방법 숙지하여 편리하게 대관해요

사하구는 현재 지역 내 카페나 학원, 공방 등 공간을 활용해 배움을 나누는 동네방네학습관 25곳을 운영하고 있다.

동네방네학습관으로 장소를 제공한 시설은 사회 참여는 물론 홍보 효과를 얻을 수 있고, 이용자는 집이나 직장 가까운 곳에서 평생학습을 할 수 있어 보다 편리하게 배움의 기회를 가질 수 있다. 이런 장점 덕분에 사하구 동네방네학습관 이용자와 제공자는 꾸준히 늘고 있다.

〈사하배움마당〉은 최근 평생학습의 ‘핫플레이스’로 부상하고 있는 동네방네학습관을 6회에 걸쳐 소개한다.

평생학습이 코로나19로 인해 전면 학습 중단이라는 사태를 맞았다. 이에 동네방네학습관에서 예정되었던 주경야독 프로그램(주간에는 자격증 과정, 야간에는 취미교양 과정)이 무기한 연기되었다. 동네방네학습관은 주경야독처럼 정해진 프로그램을 들을 수 있는 기능도 있지만 동아리도 있거나 배달강좌를 이용할 수도 있다. 자체 발표회나 전시회 등 공간이

필요하다면 약간의 기준을 만족한다면 누구나 집 가까운 곳에서 활용가능하다.

평생학습관에서 색채심리과정 1급 과정을 수료하고 동아리 회원을 간스터디를 하기 위해 동네방네학습관을 이용한 박지은(40세·당리동) 씨의 실제 이용후기를 들어봤다. 평생학습관에서 1급 과정의 프로그램을 운영한 것은 특별하다. 보통 2급까지의 과

정은 많지만 색채심리상담 1급 과정은 수강생들의 열정이 만들어낸 결과로 보인다. 특히 하단동에 있는 동네방네학습관인 ‘새동아직업훈련학교’에서 꾸준히 스터디를 해오고 있다. “새동아직업훈련학교는 이전 평생학습관 바로 앞에 있어 접근성이 좋고 평지에 있어요. 사설 학원으로 강의실이 많아 이용하기가 편리했어요.” 라고 박지은씨는 말했다. 주로 색채심리 심화과정을 위한 스터디를 했고 사하구에서 열리는 성과공유회나 알뜰장터 봉사활동 준비를 이곳에서 했다고 한다. 이 곳을 이용하는데 불편한 점이 있었거나 번거로웠다면 이용하지 않았을 텐데 장소나 시간 거리를 생각해보면 학습공간으로 이만한 곳을 찾기 어려울 것이다.

사하구에 등록된 동네방네학습관은 25곳이다. 사설 학원, 사하구 작은도서관, 공방 등 등록된 공간도 다

양하다. 3명 이상의 사하구민이면 누구나 사용 한 달 전에 신청하면 된다. 이용자는 먼저 사하구 평생학습관 홈페이지에서 이용가능한 장소를 검색하고 신청한다. 이용자가 원하는 기관과 구 담당자의 협의 후 최종 승인된다. 다만 정치나 종교, 영업 활동 등의 개인적인 목적을 위한 사용은 제한된다.

동네방네학습관 대관은 신청절차가 복잡하지 않아 학습장소를 찾고 있는 다른 동아리나 구민들이 적극 이용해보면 좋을 것 같다. 코로나19로 위축된 평생학습이 빠른 시일에 회복되어 일상의 소소한 행복을 되찾기를 희망한다.

문의 : 사하구 평생교육과 220-4806

김정숙 평생학습구민기자 kjs5328@hanmail.net

브라보! 마이 라이프 송!

까치마을 이야기를 노래로 만드는 시간



센터 평생학습동아리실에서 매주 1회 3시간씩 총 30회에 걸쳐 진행된다. 코로나19의 전염확산 방지를 위해 사회적 거리 두기가 연장되어 참가신청은 5월 초, 개강은 5월 말에 할 예정이다.

프로그램은 지역특성화사업을 소개하며 참가자들이 인터뷰를 통해 소개를 갖는 오리엔테이션으로 시작한다. 음악의 기본적 요소를 쉽고 재미있게 체험하고 익히며 다양한 방법으로 나를 소개하고 몸짓으로 표현한다. 나의 장점,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이루고 싶은 것을 표현하며 삶을 긍정적으로 보는 시간을 가진다. 악보와 친숙해지고 곡을 이용해 노래를 부르고 내 삶을 넣어 이야기하고 글로 적어본다. 참가자들이 직접 작곡을 하고 선율을 입혀 노래를 완성한다. 현장학습과 리허설을 통해 연습하고 그간의 성과를 발표하는 작품 전시와 음악회로 수업이 마무리된다.

까치마을에는 비석마을이 있다. 생과사의 경계에서 살아가는 주민들의 삶과 애환을 노래를 만들어 합창하는 시간동안 참가자들이 자신을 알아가고 잠재된 예술성으로 즐거움과 행복을 느끼길 기대한다.

문의 : 사하구 평생학습관 220-4118

사하구가 문화예술단체와 협업하여 2020년 지역특성화 문화예술 지원사업에 선정되었다. 지역특성화 문화예술 사업은 (재)부산문화재단 주최로 지역문화 예술 창작 활성화와 시민의 문화향유 기회 확대를 위해 예술단체를 대상으로 지역 내 유휴공간을 연계하여 부산지역의 특성을 나타내는 예술 활동을 지원한다.

선정된 사업은 ‘브라보! 마이 라이프 송!’ 프로그램으로 근현대사의 아픔과 삶의 애환이 담긴 까치마을 이야기를 노래로 표현한다. 미술, 무용, 음악 등 다양한 예술 체험을 할 수 있다. 다양한 공연과 예술교육으로 부산에서 활발하게 활동하는 예술단체 ‘클래식라디오’와 협업한다. 사하구는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주민들에게 사하구 지역의 특성을 알리고 자발적인 문화예술 참여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사하구민 20명을 대상으로 실버힐링

김민정 평생학습 구민기자 cute0114@hanmail.net

2020년부터 사하아카데미는 세 번째 목요일에 열려요



회차	날짜	비고
-	4. 16. (목)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취소
-	5. 14. (목)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취소
96회	7. 9. (목)	둘째 주 목요일
97회	9. 17. (목)	셋째 주 목요일
98회	10. 25. (목)	셋째 주 목요일
99회	11. 19. (목)	셋째 주 목요일
100회	12. 17. (목)	셋째 주 목요일

다양한 주제로 명사의 강의를 들을 수 있는 사하아카데미가 2020년부터 매월 세 번째 목요일로 운영 요일이 바뀐다. 4월부터 12월까지 계획된 사하아카데미는 을지연습과 하절기 기온상승에 따라 5월과 7월에만 두 번째 목요일로 변경된다. 6월은 사하아카데미가 아닌 ‘인문학아카데미’가 네 번째 목요일 야간에 개최될 예정이다. 8월은 더운 날씨로 사하아카데미가 열리지 않는다.

장소는 사하구청 본관 4층 대강당이며 시간은 오후3시부터 약 2시간 동안 진행된다. 사하구민은 누구나 참석가능하다. 4월, 5월 사하아카데미 일정은 「코로나 19」 여파로 취소되었고, 남은 일정도 변경될 수 있다.

문의 : 사하구 평생교육과 220-4802
평생학습관 홈페이지 <http://www.saha.go.kr/edu>

김미연 평생학습 구민기자 01hanthis.naver.com

아름다운 그대

경로당 어르신들의 ‘행복 전도사’

평생학습계좌제에 배움 열정 차곡차곡 김향숙 주민강사



배우고 나누는 일이 곧 자신의 행복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 행복 학습경로당의 김향숙(63세·다대동) 주민강사이다.

사하구는 찾아가는 학습나눔사업의 일환으로 2015년부터 행복학습경로당을 운영해왔다. 실버놀이, 전통놀이 등을 학습하고 노인 및 건강 관련 자격증을 취득한 주민강사를 사하구 내 경로당에 파견하여 어르신들이 건강하고 활력 있게 삶을 꾸릴 수 있도록 돕고 있다. 김향숙 씨는 초창기부터 어르신들과 행복을 만들어 온 열정 주민강사이다.

그는 40대 초에 시어른들을 모시기 위해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었다. 자녀들까지 결혼시키고 활력이 필요하던 중에 지인의 소개로 평생학습관을 다니게 되었다. 배움의 열정이 많았던 그는 탈무드 영재 창의 지도사 2급 과정을 시작으로 꾸준한 학습자가 되었다. 효인성 지도사, 전래놀이, 웰빙 실버놀이, 손유희 등 이루 헤아릴 수가 없다.



학습이력은 고스란히 평생학습 계좌제에 쌓였다. 그는 평생학습이력으로 주민강사가 되었을 뿐 아니라 지난 3월,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이 발행한 책자에 평생학습 계좌제 활용 우수 사례자로 소개되기도 했다.

탈무드 영재 창의 지도사 2급 과정을 이수한 후 그는 경로당 봉사를 시작했다. 행복학습경로당 인기 강사가 되기까지 5년 동안 보진소를 통해 치매 선별, 인지 향상 기능 활동 봉사를 해온 것이 큰 도움이 되었다. 시어른들과 살았던 덕분에 어르신들의 마음도 자연스레 이해할 수 있었다.

김향숙 씨는 한 경로당에서 보통 10회 정도 수업을 진행한다. 그의 수업은 다양하고 다채롭다. 어르신들의 상황에 맞게 재미있는 수업을 하려고 힘쓴다. 신체놀이와 치매예방, 인지향상 등을 고려하여 자신의 모든 지식과 경험을 접목시킨다. 그는 먼저 어르신들과 스트레칭과 웃음치료를 분위기를 만든다. 어르신들이 어렸을 때 해봤을 전통 놀이 가운데 실뜨기, 팽이돌리기, 신발 던지기, 비석치기, 옷놀이 등으로 신체 놀이를 한다. 교구는 주변의 물건들을 재활용하여 그가 직접 만들어 사용한 다. 명절 전에 만든 세뱃돈 봉투는 어

르신들의 뜨거운 호응을 불러 일으켰다. 호랑이 민화를 색칠하기도 하는데 크레파스, 사인펜을 처음 잡아보는 어르신들이 많아 가슴이 먹먹해지기도 했다. 한 시간의 수업이 짧을 수밖에 없다. 어르신들은 목을 빼고 강사를 기다리고 강사는 그런 어르신들을 만나는 게 행복하다.

처음 주민강사로 나갔을 때는 높고 싶은 어르신들의 마음을 읽지 못하고 자기 열정으로 신명나게 수업을 진행했다. 그런데도 그 노력을 높이 산 어르신들이 표창장을 주었을 때 한없이 미안하고 고맙았다. 또 다른 경로당에서는 마지막 수업을 마쳤을 때 한 어르신 감사의 마음으로 무척준 흥어회 무침은 잊을 수가 없다고 덧붙였다.

그는 어르신들의 우물한 얼굴이 환해지고 자존감이 높아지는 것을 보면 즐겁고 만족한다. 그는 “건강이 허락하는 날까지 어르신들과 즐겁게 생활하고 싶다.”라고 바람을 말한다.

이미성 평생학습 구민기자 merrygold2971@hanmail.net

평생학습자 미니 인터뷰

“좋은 강좌 많이 만들어주세요”

사하구 평생학습 인구가 늘고 있는 가운데 학습자들이 평생학습에 참여하는 동기와 목적이 다양해지고 평생학습 강좌에 대한 요구도 높아지고 있다. 사하구는 평생학습에 대한 구민들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모니터링 활동에 힘쓰고 있다. 평생학습에 참여하고 있는 학습자들을 만나 강좌에 대한 의견, 바라는 점 등을 들어봤다.

◇ **조아라 씨(35세·하단동)** 처음에는 재료비가 부담되어 망설이다가 마음을 먹고 평생학습관에서 아동요리 지도사 2급에 도전해 자격증을 취득했다. 집에서 하는 것 보다 밖에 나가서 요리하니 더 좋았다. 아이들 눈높이에 맞추어 하는 요리는 더욱 재미있었다. 강사가 실전에서 하는 것부터 가르쳐줬는데 이렇게 현장을 같이 다니면서 하는 프로그램을 많이 했으면 한다. 학습관에서 아동요리지도사와 관련된 프로그램을 여러 가지 수강하여 많은 도움이 되었다. 그 덕분에 지금은 사하구 장애인 복지주간보호센터에서 강의를 하고 있다.

◇ **이둘너 씨(67세·괴정동)** 평생학습관에서 생크 쓰레기처리장에 견학을

다녀 온 후 모든 재활용을 잘 해야겠다고 생각했다. 어린이, 청소년, 어른 등 현장 견학을 많이 하는 프로그램을 활성화 시켰으면 좋겠다. 또 평생학습관이 제2청사로 이전해 한 곳에서 여러 가지 일을 볼 수 있는 게 좋다. 학습관에서 알뜰 문자도 보내줘서 그 때 그 때 알 수 있어 도움이 된다. 바라는 게 있다면 운동 프로그램으로 요가나 라인댄스를 했으면 한다. 그리고 지금처럼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유지해줄 바란다. 취미도 하다보면 소리로 연결되니 평일에 한정되어 있는 프로그램의 폭이 넓혀져 주말에도 들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

◇ **조미용 씨(60대·하단동)** 낙동인문열전 강의를 수강했다. 강의내용이 훌륭해 많은 도움을 받았는데 수강생이 적어 안타까웠다. 보다 지금보다 홍보가 잘 되어 많은 분들이 함께 강의를 들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구민들이 바라는 모든 것이 하나하나 반영되어 유익하고 행복한 학습을 누렸으면 한다.

이경녀 평생학습구민기자 leekn61@hanmail.net

별이 빛나는 밤에 배우고 나눈다

해운대 별밤학교

참신한 시도와 수준 높은 강좌로 해운대 구민들로부터 많은 관심과 사랑을 받고 있는 ‘해운대 별밤학교’를 소개한다.

평생교육의 좋은 모습이 널리 알려짐에 따라 많은 사람들이 프로그램에 참여하고자 하지만 대부분의 강좌가 평일 낮에 진행되어 참여에 어려움이 있다. 특히 직장인과 학교에 다니거나 낮 시간을 활용하기 어려운 사람들이 그러하다.

‘해운대 별밤학교’는 이러한 문제의 식에서 출발하여 주간에 함께 할 수 없는 이들을 위하여 18시 이후에 열린다. 2019년 5월에 첫 번째 별밤학교가 시작되었고 9월~11월 가을학기가 이뤄졌다. 음악, 미술, 공예, IT, 인문학, 요리, 건강, 영화 등을 주제로 차 한잔과 함께하는 월례 특강 ‘머라카노’ 48강좌와 2회 이상 연속 강좌인 ‘배움에 빛난데이’ 14강좌가 열렸다.

별밤학교가 시작되자 많은 강좌가 생각 밖으로 짧은 시간에 마감되었다. 첫 번째 참여한 상반기 수강생들의 강의 평가에 97% 이상의 수강생들이 강좌에 만족하고, 99%가 재수강 의사를 나타내는 절찬의 만족도를 보여주었다. 이러한 큰 참여와 호응을 얻게 된 것은 프로그램의 다양성과 전문성

으로 알찬 구성이 바탕이 되었다. 또한 별밤학교의 취지를 공감하는 해운대 소재 카페, 디자인 샵, 책방, 게스트 하우스 등 다양한 업종에 종사하는 대표들이 그들의 공간을 제공하고 전문적인 지식을 나누는 데 흔쾌히 동참해 주었기 때문이다. 이 같은 분위기와 교육환경에 따라 별밤학교는 자유스러움과 편안함이 묻어난다.

직장인과 청년들에게 새로운 배움의 기회를 제공하고 소규모 상업시설을 개방하여 평생학습 문화공간으로 활용하는 프로그램을 사하구에서도 준비 중이다. 올해 하반기 운영 예정인 ‘동네방네학습관 야독(夜讀)’과정으로 야간에 동네방네학습관으로 지정된 카페, 공방, 학원 등에서 그 장소만의 특색을 살린 강좌를 들을 수 있다.

해운대 구민들에게 좋은 평가와 관심을 받는 ‘해운대 별밤학교’와 같이 사하구의 ‘야독’ 프로그램도 구민들의 많은 참여와 관심을 받기를 기대해 본다.

박강균 평생학습구민기자 albert01@hanmail.net